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② 0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①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① 28. ② 29. ⑤ 30. ④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① 36. ① 37. ⑤ 38. ③ 39. ④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⑤ 45. ④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에 따른 준비성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파일을 정리하는 이유가 파일 관리의 효율성과 파일 찾기의 편리성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파일 정리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의 '저의 컴퓨터~소개하려고 합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표 시작 부분의 '~관리하시나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발표자의 '보시는 것은~도식화한 것입니다.'라는 발언과 시각 자료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발표 끝 부분에서 '이와 같이 풀더는 3단계까지~제 파일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의 "각 단계별 풀더 수는 5개로~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볼 때, 발표자는 풀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③ 발표자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단계가 너무 많으면 파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이 다른 컴퓨터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주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학생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정거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액체가 아닌 음식물을 먹는 방법을 연구원에게 추가로 질문하고 있으나 자신

이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요청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교내 신문에~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등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우주인들이 공중에~본 적이 있죠?'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괜찮잖아요?' 등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아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8]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의 2문단에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즉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를 주로 읽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왜 그 분야의 책들을 읽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 ‘청소년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의 밑거름’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하여, 청소년기에 독서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라는 독서 실태 조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조사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이라고 답했다.’에서 독서량이 적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④ 2문단에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독서 경향 실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㉔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독서량의 차이가 나타나 있고, ㉕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성별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㉔에는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에 해당하므로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또한 (나)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적다는 내용의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는 ‘중간’ 부분의 내용인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간’의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면, 학생들의 독서 실태로 ‘독서량’과 ‘독서 경향’만 다루던 것보다 내용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판단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전국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㉕에서 독서 동기로 책 읽기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나)의 끝 부분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넉넉하고’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균형 잡힌’에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졸리면 틈틈이 자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플 것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책을 적게 읽으면 생각이 여물지 않는답니다'에서 독서량 부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들어 축 처진 풀에 물을 흠뻑 주면 되살아나듯'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서량 부족이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 '골고루 그리고 많이 읽어'에서 독서량 부족과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⑥: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⑦: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이다'의 뜻으로는 '돋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음운의 변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급행열차’가 [그팽널차]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이 [널]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㉓)’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랑잎’이 [가랑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ㄴ’이 ‘첨가(㉓)’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가 [갑찌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㉒)’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는 과정은, ‘ㄱ, ㄷ, ㅂ’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③ ‘술하다’가 [수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술’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㉔)’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⑤ ‘서른여덟’이 [서른녀덜]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ㄴ’이 ‘첨가(㉓)’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덜’이 [덜]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㉒)’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2. 문장 성분 분석·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㉑), 연결 어미(㉒), 전성 어미(㉓)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㉑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㉓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으로, ‘가는’의 ‘-는’은 ㉒의 연결 어미가 아닌 ㉓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⑤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13. 피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해 국어사전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갈-리다¹’과 ‘갈-리다²’의 품사가 모두 동사라는 점, ‘갈-리다¹’과 ‘갈-리다²’가 모두 동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능동사 ‘갈다¹’과 ‘갈다²’의 품사는 동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리다¹’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갈다¹’에는 ①과 ②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갈다¹’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인 다의어(多義語)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갈-리다¹’과 ‘갈다¹’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로 ‘갈리다’는 ‘갈- + -리- + -다’로 분석되어 피동 접미사 ‘-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갈-리다¹’ ①이 ‘갈다¹’ ①의 피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고려하면, ‘갈다¹’ ①은 ‘갈-리다¹’ ①과 비교하여 능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갈-리다²’와 ‘갈다²’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갈다²’의 의미로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를 추론할 수 있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은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6~18] 과학, '동물의 길찾기'

지문해설 : 이 글은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길을 찾는 동물들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는데,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에 대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으로 곤충과 포유류 등이 주로 활용한다. '재정위'는 공간적 정보와 같은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식이며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동물의 현재 위치와 돌아갈 장소에 대한 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다. '경로적분'에 있어 방향 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 함께 사용된다.

[주제] 동물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원숭이는 길찾기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도 함께 활용한다고 했는데, 같은 문단에 앞서 설명된 내용이 '재정위'에 대한 것이고, '재정위'의 핵심이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원숭이는 장소기억과 함께 장소의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길을 찾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보면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이 '경로적분'이므로 곤충이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새가 장소기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산란된 햇빛 정보는 '경로적분'에서 방향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흰쥐는 길찾기의 방식으로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재정위'를 사용하므로 산란된 햇빛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꿀벌이 사용하는 길찾기 방법은 '장소기억'으로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길을 찾아가므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새로운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사막 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사막에는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막개미가 장소기억을 활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막개미가 '경로적분'을 통해 방향을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므로 햇빛을 사용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는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경로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이 온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집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경로를 따라 집으로 되돌아간다. ⑤ 사막개미가 이동하면서 매 순간 계산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의 직선 ‘거리’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파악되는 집 ‘방향’이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먹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아리가 활용하는 기하학적 정보는 먹이가 있는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벽의 길이이다. 이에 따라 먹이가 있는 A 주변의 벽은 긴 벽이 먹이의 왼쪽, 짧은 벽이 오른쪽이라는 기하학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가 높은 빈도로 찾아가는 장소는 이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A와 C이고, 긴 벽이 오른쪽, 짧은 벽이 왼쪽에 있는 B와 D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탐색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A와 대각선에 위치한 C의 기하학적 정보는 A와 같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므로 A와 C의 탐색 빈도는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론된다. ②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B, C와 D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D, B와 C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C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와 B와 D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는 상반되므로 A, B, C, D에 대한 탐색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9-21] 기술,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지문해설 : 이 글은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를 통해 인체 조직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X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조직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X선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한 것이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이다.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감쇄되는데, 이렇게 감쇄된 총량을 환산값이라고 한다.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활용하면 단면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이런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면 입체 영상을 얻을 수도 있다.

[주제] CT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X선을 인체에 조사하면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 산란되고 나머지

는 조직을 투과한다. 이것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할 때 조직에서 흡수·산란되는 것이 많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약해지고, 흡수·산란되는 것이 적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와 4문단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소된 총량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역투사 결괏값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환산값이 클수록 역투사 결괏값은 커진다. 그런데 환산값은 X선이 조직에 흡수·산란되면서 감소된 총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환산값은 커진다. 이것은 조직이 없거나 공기만 있는 부분은 환산값이 가장 작아 역투사 결괏값도 가장 작다는 의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역투사는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이 아니라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③ 6문단의 '역투사 결괏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감소되는 X선도 많아 환산값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역투사 결괏값도 커질 것이다. ⑤ 5문단에서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로 처리하면 역투사 결괏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B는  같은 모양의 물체를 45° 방향에서 비추게 되므로, B에 투과되는 물체는  모양이 된다. ㉠의 X선 투과율은 ㉡의 2배라고 하였으므로, ㉠의  부분을 투과하는 X선 환산값은 물체 ㉡의  모양( 모양을 반으로 접은 모양)을 통

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 ㉠은 정사각형이고 ㉡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며 맞닿아 있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 모양의 크기와 높이는 ㉢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와 ㉢가 합쳐진 ▲ 모양의 물체를 투과하는 X선의 환산값은 물체 ㉡의 ▼ 모양을 투과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B 방향에서 해당 도형의 환산값을 구하면 0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다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 후 점차 감소하여 다시 0이 되는 ㉠번 그래프가 된다. 정답 ①

[22~25]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

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4.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된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6~27] 인문,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세계관은 다양한 신념들의 체계인데, 그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도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하지만, 그의 주장은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버클리의 반박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다. 버클리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신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로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

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는 세계 속의 대상이나 현상으로 가득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번개가 치는 현상으로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의 견해와 부합한다.

ㄹ. 버클리는 맛뿐 아니라 형태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사과와 단맛뿐 아니라 사과와 둥근 모양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28-30] 예술, '한옥의 창호'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에서의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심미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는 창호는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공간의 연결, 분리, 실내 공간 구획의 변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열린 창호는 안과 밖,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심미적 공간이며,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옥에서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및 심미적 기능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에서 창살이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뽕안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에서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여러 쪽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한다고 하였으나, 4문단에서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을 내려 달았을 때,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 2문단의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사람의 표정이나 행위 따위를 보고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은 글을 보고 그 음대로 소리 내어 말로써 나타내다, ㉢은 (작가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여)작가의 작품을 보다, ㉣은 글자의 음대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디스크 따위에 든 정보를 가져와 그 내용을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31~33] 현대시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지문해설 : 이 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든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든지 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라는 것이다. 화자의 이러한 믿음은 뿌리가 깊으면 밑동이 잘려도 새순이 돋는 갈대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지만 물 고이면 꽃은 피더라는 자연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자연

의 이치이므로 ‘고통’은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히 흔들리자고 말한다. 심지어 고통과 살을 맞대며 가자고 말한다. 외로움을 걱정하며 목숨을 거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면 고통과 설움의 땅을 벗어나 ‘뿌리 깊은 별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슬픔은 없다는 생각과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손 하나’)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낙관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주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다짐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대구’란 비슷한 어조를 가진 구절을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2연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나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3연의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어조를 가진 두 행이 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순’이나 ‘꽃’이라는 시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의인화로 잘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는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한 영혼이여’나 ‘고통에게로 가자’ 등에서 ‘영혼’, ‘고통’ 등의 관념적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추상적 관념어들이 구체적인 대상인 양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작품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인간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조는 화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새순’은 ‘밑둥 잘리어도’ 돋는 것이며, ‘등불’은 ‘이 세상 어디서나’ 켜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갈대의 밑둥이 잘리는 것은 갈대에게 일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려도 ‘새순’이 돋는 것은 갈대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등불’은 켜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빛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둠은 고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밑둥’은 밑둥을 가리키는 말로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므로 ‘밑둥 잘리어도’가 바로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울’은 ‘등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난 극복

복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② ‘한 계절’ 동안 ‘넉넉히’ 흔들린다고 했으므로 상한 갈대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와 [B] 모두에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조를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낙관적 믿음과 의지적 태도가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3연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3연은 계속해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고난을 막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나서 도달하는 공간이므로 긍정적 공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을 영원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 깊으면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 역시 굳건한 이미지를 가진다. ② ㉠의 ‘별판’은 갈대가 뿌리를 박은 채 자라야 하는 지상의 공간이므로 ‘하늘’에 대응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손’은 ‘감감한 밤’과 대비되고 ‘오고 있’는 것이므로, 희망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또한 ‘별판’에 서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이다.

[34~37] 현대소설 - 전광용, ‘꺼삐딴 리’

지문해설 : 이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겪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오직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 친일파에서 친소파로, 다시 친미파로 재빨리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일제 강점기에 제국대학에서 명예의 시계를 탄 수재로서 평양에서 개업하여, 일본인과의 교제를 넓게 트고 일본말만 하는 철저한 친일파이다. 그는 광복 직후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한 후에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방에 갇히게 된다. 감방 안에서 러시아어를 익혀 소련군 스텐코프 소좌의 혹 수술을 성공리에 마쳐 감옥에서 풀려나 오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소련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철저한 친소파로 변신한다. 그 후 1·4후퇴 때 서울로 오게 되고 미군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미 국무청 초청 케이스를 할당받기 위해 대사관 직원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한다. 이러한 이인국 박사의 삶을 통해 작가는, 권력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시대에 따라 약삭빠

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인국 박사가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기 전의 현실 상황과 회중시계를 매개로, 과거 소련군이 입성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따라 변절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인국 박사는 회중시계를 보며, 과거 회상에 잠긴다. ‘중략’이전은 해방 후 소련군이 입성한 북한에서 월남하여 서울에 있는 현재의 행적에 관한 것이고, ‘중략’이후는 월남하기 이전 소련이 입성한 북한에서의 과거에 행적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② 등장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④ 감각적인 수사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현학적 표현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인국 박사를 통해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창틀이나 탁자 위에 있는 먼지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결벽성을 지닌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인국 박사의 심리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모습이지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려 깊은 자세는 아니다. ③ 액자 속의 모조지를 빼내어 찢는 장면을 고려할 때,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그동안 추구해왔던 친일을 버리려는 행동이므로,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인국 박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이기는 하지만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물건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계’는 인생의 반역이자 이인국 박사의 삶의 모습이 작품 속에 반영된 소설의 중요한 구성 장치이다. ③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통해 이인국 박사의 주도면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④ ‘신사복’은 이인국 박사가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 및 감회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⑤ ‘라디오’에서 여러 날째 소련군이 입성한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인국 박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알려 주는 소재이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은 이인국 박사가 역사의 질곡 속에서 겪었던 죽음의 고비 즉, 일제 강점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등의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생사기로(生死岐路)’가 ㉠에 부합하는 한자성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인국 박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고비와는 거리가 멀다. ③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태도로 ‘죽음의 고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8~40]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앓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41~43] 고전소설 - 작자미상, '속영낭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 양반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을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다. 전체 내용은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적강하여 백선군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자 백선군이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 살아난 숙영이 선군과 행복한 삶을 살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효를 요구하는 부모에 맞서 자식이 애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의 변모 양상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현실의 장애를 극복한 남녀의 숭고한 사랑

41. 발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은 죽어서라도 숙영남자를 만나겠다는 자기 희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A]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준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한다고 말할 뿐, 자신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숙영남자가 백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원혼을 갚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② [B]는 백선군이 죽은 숙영남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쓴 제문을 읽은 것이다. ③ [A]에는 죽은 숙영남자가 산 백선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고, [B]에는 산 백선군이 죽은 숙영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④ [A]는 '낭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로 시작하고 있고, [B]는 '성인도~다시 없으리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백선군과 숙영남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다.

4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매를 견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선군이 엄하게 매월을 추궁하였기 때문이지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백선군의 매월을 신문한 것은 숙영남자의 몸에서 칼을 빼자 그 구멍에서 파랑새가 '매월'이라고 울면서 나오는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A]에서 숙영남자는 억울한 누명을 써 혼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매월이 스스로 밝혔듯이 '간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민 것은 스스로 밝혔듯이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로 인해 숙영남자는 억울해서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공이 선군의 성혼 문제로 선군과 갈등하고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를 이 작품에 적용하면 과제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백선균이고, 과제는 죽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것이다.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가 맞기는 하지만, 백선균은 숙영남자가 나타난 원인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 ㉤은 상공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백선균을 방해하기 위해 한 말로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는 맞지만, 부자간의 갈등은 상공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은 아니다. ㉥ ㉦은 백선균이 상공이 과제 수행의 방해자임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백선균은 숙영남자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임 진사의 딸과 성례 시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실제 상황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아직까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지 못했으므로 과제 해결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

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굵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짤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